자유기업경제에서 이윤과 손실은?  
1.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채찍이다.  
2. 적절한 결정에 대해 보답(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당근이다.  
3. 1번 2번 모두 옳다  
4. 이윤과 손실은 항상 0과 같다

이윤과 손실은 효율성과 기업의사결정의 기준임﻿﻿.

미시경제학은 반독점정책과 관계하고 있다. ~~O~~  
미시경제학은 최적생산결정﻿﻿, ﻿﻿가격정책﻿﻿, ﻿﻿최적자원배분﻿﻿, ﻿﻿반독점정책 등과 관련있는 분야이다﻿﻿.

아스파라가스의 시장수요선과 시장공급선이 톤당 p\*와 Q\*에서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라. 그림은 각자 그려볼 것. 참고: 수요선은 우하향, 공급선은 우상향의 직선임. 정부가 최저가격을 P\*보다 2배 높은 톤당 2P\*와 로 설정했다면, 결과는?  
1. 아스파라가스의 공급량은 감소될 것이다  
2. 아스파라가스의 초과공급  
3. 아스파라가스에 대한 시장공급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함  
4. 위 123 모두 해당.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형상 발생

커피의 가격이 증가한다면 차(tea)의 시장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X  
커피와 차는 대체재임. 커피의 가격이 증가하면 커피의 수요는 감소함. 대체재인 차의 수요는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따라서 차의 가격이 올라감.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 가격은 비탄력적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가격탄력성이 1이면  
2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3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4 123모두아님

1 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 보다 크면 탄력적. \* 주의: 수요의 경우 – 부호가 붙음. 따라서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의미함.

어떤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값이 무한대라면 이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 재화의 균형가격은 감소할 것이다. X  
완전탄력적임. 수요곡선은 평행선,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 가격불변.

제품의 수가 오직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하라. 두 개의 제품이 있는 무차별곡선상의 점B는 무차별곡선상의 점A의 위에 그리고 우측에 있다면 그리고 점A를 거치는 무차별곡선의 성격이 1의 효용수준이라면 점B를 거치는 무차별곡선의 효용수준은?  
1 1보다 크다  
2 1과 같다  
3 보다 작다  
4 0과 같다

무차별곡선상의 점B가 무차별곡선상의 점A의 위에 그리고 우측에 있다면 효용(만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의 모양(형태)은 가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O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효용(만족)을 나타내는 곡선임.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문제: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일치하는 평균생산량은?



1 최대값이 1/2일때  
2 최대값이 1/4일때  
3 최대값이 같을때  
4 최대값의 1과 1/2배일때

한계생산=산출량변화분/투입량변화분, 평균생산=산출량/투입량

어떤 재화가 Giffen(기팬)재라면 이 재화는 열등재이어야 한다. O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플러스 즉,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떨어지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기펜재가 되려면 (1) 일단 열등재이어야 하며,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야 한다.  
대체효과란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효과.

어시장에 활어를 공급하는 시장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완전비탄력적이다. 활어를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조세(종량세)를 부과할 경우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조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2 조세는 소비자가 모두부담하게 된다  
3 시장균형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상승하며 상승폭은 조세 부과액만큼 상승한다  
4 시장균형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조세 부과액보다 적다.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즉 수직) 조세를 부과한다고해서 공급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균형가격이 오르진 않고, 그냥 조세의 증가를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보다 완만한 형태이다. O  
일반적으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보다 완만한 형태이다. 즉,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보다 탄력적이다.

어떤 때 독점적 기업은 산출량을 확장하는가?  
1.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할때  
2. 한계비용이 한계수입을 초과할때  
3.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같을 때  
4. 한계수입이 음일 때\*(마이너스)

독점적 기업의 균형(가격 및 산출량)은 한계수입(MR)=한계비용 (MC). 이렇게 될 때까지 산출량을 확장한다.

전력산업은 자연독점이다. O  
공기업의 대부분은 자연독점인데 이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A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A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2. 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가 직선이 된다.  
3. 공장의 크기를 두배로 하면 생산량이 두배가 된다  
4. 모든 투입요소를 두배로 늘리는 경우 생산량도 두배로 증가한다.

규모의 경제란 공장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매우 큰 산업에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물 단위당 원가(평균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업을 통한 근로자들의 전문화와 기술적 요인 등에 기인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요소(투입요소)를 두 배로 늘리면 생산량은 두 배를 넘게 된다.

경제적 이윤이 0이어도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O  
경제적 이윤이 0이어도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단, 기회비용을 ‘광의’로 정의하면 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협의’로 정의하면 기회비용=암묵적 비용

만약 완전경쟁산업이 독점화된다면 결과는?  
1.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2.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아직 충족된다.   
3.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이전의 그 경우보다 더욱 더 충족된다.   
4.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경쟁하의 가격은 재화의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즉 가격이 비싼 생산요소나 생산물일수록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경쟁하에서는 이처럼 희소성의 척도인 가격에 의해 재화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후생경제학의 측면에서 '최적자원배분'이라 할 수 있다. 완전경쟁을 전제할 경우 가계나 기업 모두 생산물과 생산요소 사이의 한계대체율은 양자의 가격비와 일치한다. 그런데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파레토기준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은 ‘향상’을 나타낸다.  
O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있는 경우를 '사회적 개선'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개선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또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선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불만을 사는 일 없이는 자기 만족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인 셈이다. 예를 들면, A가 빵과 콜라 전부를 독차지하고, B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파레토 최적'이다. B를 위해 A가 가진 빵과 콜라를 뺏어온다면 A의 만족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파레토 최적'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수준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을 유발한다.   
2.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을 유발한다.  
3. 임금수준을 상승시킨다.   
~~4. 노동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최저가격제란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예: 최저임금제도와 농산물가격지지제도). 이 때 최저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만 의미를 가지며(실업발생,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 임금상승) 만일 균형가격보다 최저가격이 낮으면 균형가격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노동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이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X  
노동과 여가를 정상재로 간주한다. 대체효과: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소득효과: 임금의 상승은 실질소득의 증가로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감소시킴. 임금상승=대체효과(+) + 소득효과(-), 임금상승효과: 소득효과 > 대체효과. 즉 임금의 상승으로 여가가 늘어남.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주식배당은 순자산의 유출이 없이 배당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주식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3. 미교부주식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하며 주식교부시에 자본금계정과 대체된다.  
4. 주식배당 후에도 발행주식수는 변동이 없다.

주식배당 후에는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분산투자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 O  
분산투자 방법은 구성자산(종목)수를 늘리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다음은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1. 물가지수는 생산자 및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실제로 주고받는 값의 변화를 측정한다.  
2. 물가지수는 여러 가지 상품 또는 일련의 행동이 지니는 가치의 변화를 측정한다  
3. 개별지수는 한 개의 대상변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한다  
4. 종합지수는 여러 개의 대상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변화를 측정한다.

2 는 물량지수를 말한다. 물량지수는 생산량이나 출하량 등 물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공급경제학은 조세감면을 중시한다. O  
Say, Feldstein 등이 대표적 학자들임. 미국 게이건대통령 당시에 조세감면을 통해 총공급을 확충하여 성공한 정책임.

다음 정책 중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은?  
1. 정부지출감소  
2. 이전지출감소  
3. 개인소득세증가  
4. 개인소득세감소

개인소득세를 감소시키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어난다. 즉 총수요는 늘어난다.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은 생산요소들에 의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O  
생산요소들은 노동, 자본 등이 있다.

다음 중 맞지않은 것은?  
1. GDP 갭(gap)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를 말하며, 총생산갭이라고도 한다  
2. GDP 갭이 양(+)이면 실질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갭이다  
3. 인플레이션 갭상태에서는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 억제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경우 물가가 반드시 하락한다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물가가 반드시 하락하지는 않는다.

두 개의 단순모형에서 C(소비)=a+cY(소득), 따라서 S(저축)=-a+(1+c )Y가 된다. O  
C(소비)+S(저축)=1임을 생각하면서 풀어볼 것.